

<서평>

신(新) 동남아인에 부치는 송영(頌詠)

추정경. 『내 이름은 망고』. 창비. 2011.

최 병 옥*

캄보디아 시엠립에 사는 자그마한 한인 소녀 이수아¹⁾의 닷새 일정을 다룬 이 소설에서는 베이온(Bayon) 사원의 신기(神氣)가 느껴진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2009년 캄보디아에서 “지독한 몸살에 목감기에 급성 중이염까지의 최악의 컨디션” 가운데 글을 쓰고 있었다고 하니 30 초반의 이 다재한 여성에게 신이 내려 쓴 글이라 고백에 이해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글의 구조는 탄탄하기 그지없고

* 인하대 사학과 부교수

1) 망고는 이 소설의 주인공 수아의 별명이다. 그녀의 원 이름은 이수아이다. 성과 이름을 바꾸면 수아가 되는데, ‘수아’란 캄보디아어로 망고를 뜻한다. 주인공 소녀는 이 별명을 처음에는 별레보다 싫어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 그려내는 변화의 최종 결과는 ‘내 이름은 망고’라는 수아의 자발적 자기 정체 선언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망고 (특히 푸른 망고)는 캄보디아에서 젊은 여성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다. 새콤한 망고는 처녀애들이 유독 그 맛을 즐기는 간식거리이다. ‘내 이름은 망고’란 곧 ‘나는 캄보디아 소녀예요’에 다름 아니다. 이 소설의 전개 과정 속에서 곳곳의 고비에 망고가 세심하게 배치된다. 캄보디아 친구가 숨쉴 있게 썰어 주는 망고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주인공은 점차 ‘망고’가 되어가는데 이 생물학적이고 주술적인 작가의 소품 배치는 음험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식물(食物)이 산천(山川) 이고 산천과 인간은 하나라는 진리를 생각한다면 망고로 동남아인을 만든다는 작가의 아이디어는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할 만하다. 기실 주인공 소녀의 이름 이수아의 성명 배치만 바꾸면 ‘망고’가 되는 것이니, 이수아나 망고는 하나이며 한국 소녀와 캄보디아 소녀는 하나라는 인식은 이미 이름 속에 암시되어 있었던 바였다. 작가가 의도한 바였는지는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인식은 작가에게 내재한 동아시아적 디엔에이의 노출이 아닐는지.

긴장과 암시는 팽팽하며 감동은 폭포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자들
에게 캄보디아는 나의 일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요술을 부린다.
이 경천동지할 의식의 변화 속에서 안개 모양으로 퍼지듯 모습을
드러내는 황혼녘의 베이온 사원에는 자야바르만 7세의 낮은 웃음이
흐른다.

『내 이름은 망고』는 ‘창비청소년문학상’ 제 4회 수상작이다. 나는
약 3년 전쯤 이 문학상의 제 1회 수상작인 ‘완득이’(김려령 2008)를
읽고 ‘청소년문학’이 예사롭지 않은 장르임을 느낀 적이 있다. 청소년
년의 시각으로, 청소년의 입말로 썼다 뿐이지 문학적 완성도는 견실
히 움켜쥔 채 시대의 흐름을 기성 문학보다 훨씬 더 앞질러 짚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가 요즘 우리를 놀라게 하는 영화 ‘완
득이’ 대박이다. 시대의 흐름이란 동남아 오리진 및 동남아 모계의
신 한국인 출현이다. 완득이 엄마는 전자고, 완득이는 후자이다. 순
결한 청소년의 감수성은 시대의 변화를 재빨리 감지하기 때문에 기
성 문학보다 ‘청소년 문학’에서 이런 소설이 먼저 나오게 아닌가 싶
다. 그리고 보면 시대 변화는 주로 청소년의 눈을 통해 가장 먼저
읽혀져 왔다. 구한 말 봉건이 깨어지는 시기를 대표하는 최초의 신
소설 ‘혈의루’에서의 주인공 옥련이나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 일컬어
지는 ‘무정’의 주인공 영채도 20 전이다. 조선의 신분질서 해체를
부르짖는 ‘춘향전’이나 서해상(西海上)의 한중 간 밀무역 성행을 반
영하는 ‘심청전’에서도 주인공은 청소년이 아니었던가?

추정경의 글은 불과 4년 사이에 ‘완득이’보다 수만 리 길 더 앞서
나가는 이 세상의 변화상을 짚어내고 있다. 이 작가의 이력을 보면
동남아학은 물론이거니와 동남아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 동남아에
관련된 글이라곤 이 소설이 유일하다. 문학가가 갖고 있는 뛰어난
영감은 종종 지역을 뛰어 넘고 역사가의 길을 앞서 인도하기도 한다
는 걸 실감하게 된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 동남아를 다루고 있는

‘완득이’만 해도 이미 대견했는데, ‘망고’는 동남아에 들어간 우리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동남아 속의 우리가 아니라 동남아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할 수도 있겠다. 이제 동남아에는 한인이 있고 한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청소년도 있다. 동남아시아에는 말레이, 타이, 크메르 등등에 더하여 각 나라의 무수한 소수민족이 있고 거기에 목하 한인(Ethnic Korean)이 한 자리를 자리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이 작품은 우리에게 자각하게 해주고 있다.²⁾

이 소설의 동남아적 가치는 각별하다. 최근 문학평론가 최원식은 한국 내 ‘동아시아 문학’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글에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동남아 소설가’로 ‘랍스터 먹는 시간’의 저자 방현석과 ‘시하늬빌 스토리’의 유재현을 든 바 있다(『창작과 비평』, 154호, 2011, 겨울). 각각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이런 문학 작품의 출현은 분명 이전 시대보다 한걸음 나간 현상이 분명하다. 그러나 최원식은 전자나 후자나 모두 형식은 달리 하되 결국 전직 한국 노동문학 운동가의 끈적이는 “후일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애석해 하고 있다. 그에 비한다면 ‘망고’는 ‘청소년’만큼이나 신선하고 발랄하며 전향적이다. 그리고 동남아적이다.

작가는 북방의 추운 나라 한국(‘寒國’)으로부터 더운 동남아로 이주해온 이 ‘신동남아인’이 어떻게 현지(인)과의 갈등을 극복해 나가면서 현지(인)화 해나가는가를 17세 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풀어내고 있다. 수아는 3년 전 엄마와 함께 캄보디아에 왔지만 그의 삶은 전혀 캄보디아와 상관이 없었다. 수아가 믿기에 엄마는 단지 빗쟁이들을 피하고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에 정착한 것이며 자신은 방콕

2) Wikipedia에서 ‘ethnic groups of Cambodia’를 검색해 보면 캄보디아를 구성하는 종족 집단 중에 한인(Koreans)이 포함되어 있다.

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 수아는 지금 방학을 맞아 집에 와 있을 뿐이다. 그런 수아가 갖고 있는 동남아에 대한 인식은 지극히 평범하다. 그에게 캄보디아는 가난하고 “숨쉬기조차 힘든 더운 나라”이다. 그래서 이 소녀는 “내 사춘기는 우기의 시작과 더불어 ... 익사했다”고 한숨 쉰다. 수아는 동남아를 바라보는 이 시대 평균치의 한국인(청소년)이다. 그러나 작가는 매우 치밀하고, 예술적이고 장엄하게 이 소녀를 궁극적으로 캄보디아와 합일하게 몰아가고 있다. 우리 동남아 연구자들은 동남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이 사회에 제공하느라 분주하지만 이 문학가는 동남아에 대한 근원적인 사랑과 존중을 독자로부터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수십권 분량 책보다 더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동남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란 측면에서 보자면 말이다.

‘망고’ 이야기에는 두개의 갈등축이 있다. 하나는 ‘나’와 어머니이다. 수아의 기억에 따르자면 어느 날 어머니는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와 헤어져 나만 데리고 시엠티에 왔고 여행 가이드를 하며 먹고 사는데 도통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 어머니는 우울증에 종종 시달리고, 가끔 술에 곤죽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나의 보호자라기 보다는 내가 이 “철부지 아줌마”의 보호자 같다. 두 번째의 갈등 축은 ‘나’와 짬빠이다. 열 여섯 살의 이 소녀는 한국인 아버지와 캄보디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떠나 버렸기에 짬빠는 거의 온전히 캄보디아 여성으로 자라고 있다. 짬빠의 희망은 압사라 무용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녀는 ‘나’와 양숙이다.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땅에 뒹굴며 싸워보기도 한 사이이다. 화해는 영원히 무망해 보인다. 수아가 싫은 사람들이 또 있다. 친구하자고 추근거리는 뚝뚝이 기사 쪽천, 아는 척 친절한 척 해보여서 그냥 싫은 “삼콜 할배”가 그들이다. 수아의 유일한 바람은 아빠가 있는 한국으로의 귀향이다. 보고플 때 전화해 보면 신호음만

올리다가 메시지 남김으로 넘어가곤 해서 더 그림기만 한 아빠가 있는 곳, 그곳이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다.

그런데 수아가 엄마 일을 대신 맡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게다가 미워 죽겠는 째빠와 닷새의 여행 안내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수아가 한국으로 갈 때 쓰려고 몰래 차곡차곡 모아둔 돈 500 달러가 엄마와 함께 사라진데다가 엄마의 가이드 파트너였던(시엠 립에서는 한국인과 캄보디아인이 한 조를 이루어 가이드를 한다) 째빠의 엄마 또한 공교롭게도 급성맹장으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이다. 수아는 다짐을 한다. “오백 달러만 벌면 이 지긋지긋한 캄보디아도 철부지 같은 엄마도 두 번 다시 안 볼 거다. 난 영원히 아빠한테 돌아가 버릴 테니까.”

작가가 수아를 처넣은 곳 즉 수아가 째빠와 함께 한국에서 온 여행객 여섯 명과 더불어 지내는 불가피한 공간과 동선은 버스 속이며, 유적지이며, 캄보디아인의 평상적 삶이 숨쉬는 시골 마을이다. 이 강제성이 없었다면 수아에게 캄보디아는 영원히 지겹고 짜증나는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토록 미워하던 째빠와 상대의 숨소리까지 느끼면서 함께 붙어 지내야 했고, 가이드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유적지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야 했으며 이런 식의 단체 관광 코스에는 꼭 끼어 있게 마련인 현지 생산물 쇼핑을 안내하는 가운데 캄보디아 물산을 이해하게 된다. 수아가 난생 처음 캄보디아의 마을을 방문해 보는 것도 이 여행 속에서였다. 유적지의 위엄과 시골 마을 꼬마 아이의 따스한 체온은 점차 수아의 편견을 무너뜨려 간다. “삼쿨 할배”의 유창한 프랑스어 실력과 조국 및 전통에 대한 사랑을 감지하는 것도, 압사라 춤의 매력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도, 이 ‘강제적 경험’ 속에서였으며 강패를 만나 곤경에 처한 뚝뚝이 기사 쪽천을 목숨 걸고 도와줄 용기를 내게 만든 변화가 온 것도 이 학습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 캄보디아 동년배와의 유대감 때문이었다. 순

결한 시골 마을의 평상(平床) 위에서 실컷 열대의 과실을 먹다가 까무룩이 편안한 낮잠에 빠져들 때쯤 되면 이 소녀는 이미 캄보디아를 충분히 사랑하게 될 준비가 되어 있음이 암시된다.

마지막 날 수아는 자신의 핏속에 이미 캄보디아에 대한 사랑의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전화 속에서 응답이 없던 아빠는 이미 이 저세상으로 간 분이라는 사실을 수아는 알게 되고 그 충격을 실마리로 하여 심연 아래 숨어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비가 내리던 몇 년 전 어느날 밤 서울에서 아빠, 엄마, 수아가 타고 가던 자동차가 전복되었고 아빠는 즉사했다. 충격으로 수아는 그 상황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지만 이후 자동차 기름 냄새만 맡아도 토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 엄마는 아빠가 깊이 사랑했던 가족이 함께 행복했던 캄보디아로 수아를 데리고 왔다. 아빠는 특히 베이온 사원을 좋아했고 가족은 종종 이곳으로 여행을 오곤 했었던 것이다. 살아난 기억은 가슴이 베어지는 듯한 아픔이지만 그것은 성장을 향한 걸음의 시작임을 작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사시나 무처럼 떨리는 내 어깨를 껌빠가 살며시 안아 주었다. 껌빠에게서 따뜻한 살 냄새와 달큰한 망고 향이 났다.”

아빠는 3년 전 어린 수아를 데리고 베이온 사원에 앉아 있었다. “이백 개의 표정이 석양에 물들어 하나가 되고, 그 따뜻한 미소가 붉게 번지는걸 말없이 바라보던 그날” 아빠는 “아빠, 근데 석상 표정이 왜 모두 다른거야?”라고 묻는 수아에게 “여긴 말이야, 어떤 기분일 때 오더라도 자기 얼굴이랑 똑같은 얼굴이 있어. 찾아보면 수아 지금 네 얼굴이랑 똑같은 것도 있을거야”라고 답해 주었다. 베이온 사원은 아빠에게 그런 존재였다. 아빠로 상징되는 이 시대의 많은 한국인에게 베이온 사원은, 앙코르왓은, 캄보디아는,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곤고해진 영혼의 안식을 위해 찾아가는 존재론적 관조의 공간으로 가까이 와 있음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애정은 그

곳에서의 정착과 자발적 동화의 길로 통한다는 것을 작가는 암시한다. 그 길을 수아는 아빠를 대신해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갈등의 두 축 중 엄마와의 관계는 수아가 아빠의 죽음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엄마가 수아 돈 500불을 갖고 사라진 이유가 여행객에 포함되어 있던 빗쟁이 때문이었음이 밝혀지면서 해소되었으나 수아의 캄보디아와의 갈등은 껌빠의 몸에서 달큰한 망고 향을 맡게 되는 것으로 상징되는 해소의 단계를 훨씬 넘어서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아빠에게 베이온은 방문 혹은 만남의 대상이었지만 수아는 베이온과 합일을 준비하고 있다. 무사히 닷새 간의 여행 안내를 마친 뒤 수아와 껌빠가 베이온에 함께 앉아 있을 때 합일을 극명하게 펼쳐 놓는 마지막 문장들의 배열은 명장면이다. “햇살이 길게 이어지는 늦은 오후쯤 길거리 민속악 연주가 시작되면, 이 흠냄새가 밴 음악은 석상의 딱딱한 얼굴을 휘감아 부드럽게 매만져 주곤 한다.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 몇몇 석상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는걸 우리는 안다.” 수아에게 이제 앙코르의 흠냄새는 부드럽게 느껴진다. 그 흠냄새 밴 음악 소리에 석상의 입꼬리가 올라가는걸 ‘아는’ 단계로 진입한 수아는 캄보디아 친구 껌빠와도 ‘우리’가 되었다. 그리고 수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갑자기 우리는 춤을 추고 싶을만큼 기분이 좋아졌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민속악 연주에 맞춰 압사라 춤을 추기 시작했다 [...] 껌빠가 흘깃 나를 바라본다. 아무렴 어때. 내 얼굴은 자야바르만 석상처럼 붉어졌지만 즐거움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아 - 나는 지금의 내가 막 좋아지기 시작했다.”

‘캄보디아가 좋아졌다’라거나 ‘자야바르만 7세가 사랑스러워졌다’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이 절묘한 표현을 유심히 보고 이유를 이해하면 우리는 작가의 빼어난 글솜씨에 목이 다 멎 정도이다. 결국은 같은 말인듯 싶지만 사실은 차이가 크다. 작가가 보내고자 하는 최선의 찬사는 캄보디아나 자야바르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변화를 실현한 수아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것은 새로운 동남아인의 탄생에 대한 격려의 박수이다. 물론 아직도 수아에게는 “이제 그만 이 습하고 덥기만 한 나라와, 다크 서클과 기미주근깨로 도배한 얼굴과 이별하고도 싶”은 짜증이 남아 있다. 이게 실체이다. 동남아인으로의 진화 도상 중 이 단계를 통과하고 있는 수많은 ‘새로운 동남아인’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수아인 것을 작가는 쪽집게로 집듯이 잡아내고 있다.

이 책은 문학이자 보고서이며 역사적 기록물이기도 하다. 나는 기억한다, 2000년 새 세기로 접어들 무렵 시엠립에서 몇몇의 수줍은 한인들이 이역의 땅에서 살아나갈 방도를 심각한 얼굴로 궁리하고 있던 모습을.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십여년이 지난 요즘 한국으로부터 시엠립에 직항 비행기가 하루 7편이 들어오는 시대가 되었다. 여행사, 숙박업, 가이드, 식당, 농업, 혼인 등의 사업을 통해 한인들이 시엠립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캄보디아의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현상은 캄보디아의 각 도시, 그리고 동남아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바야흐로 동남아시아로의 민족 이동이자 동남아 한인의 탄생이라고까지 일컬을 수 있는 이 대변화의 단면을 이 책은 망고처럼 달면서도 베이온처럼 장중한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소설 속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새로운 면모들 즉 시엠립 내 한인의 주거 방식으로부터 그들의 인적 연계, 교육, 결혼 등은 모두가 작가가 현지 체류 과정 속에서 섬세한 눈으로 건져 올린 중요한 사료들이다.

도대체 흠을 잡아내기 힘든 글이다. 아빠의 캄보디아 사랑이 흑 째빠 또는 째빠 엄마에 대한 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천박한 상상을 하기도 만드는 아리송한 부분이 한 두 군데 있어서 신경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 문제이다. 앙코르탐에 있어야 할 코끼리 테라스가 앙코르왓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이 사실

과 관련된 유일한 오류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이도 소설의 가치를 전혀 손상하지 않는다.

창비의 심사위원들은 이 소설의 장점이 “청소년문학의 미답지를 개척한 점이다”라고 했으나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보기에 이 소설은 청소년문학 정도가 아니라 한국문학의 미답지를 개척한데 더해 동남아학의 신방향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베이온의 신기(神氣)를 머금은 작품이지 않은가?